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유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0 **홈페이지** <http://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시간

3-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5-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5 May 2011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 Museum Auditorium
2011년 5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일요일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2011년 5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수요일민속음악회 Wednes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2011년 5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5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 Museum Auditorium



제705회
장인숙의 전통춤 心香舞
Dance by Jang Insuk 'Simhyangmu'
05. 07.



제706회
백연의 행복한 소리여행
'Pleasant Sound Trip' by Baegyeon
05. 14.



제707회
운교 정경희의 한춤
Hanchum by Wungyo, Jeong Kyeonghee
05. 21.



제708회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Story of Seungmu' by Lee Cheoljin
05. 28.

정자나무그늘 수요일민속음악회

Wednes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2011년 5월~6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05. 04. | 춘향가와 봄의 향연 Chunhyangga and Feast of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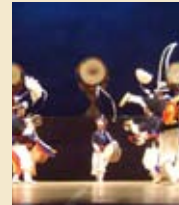
05. 11. | 새 향기, 음악의 향기 New Scent, the Scent of Music

05. 18. | 가야금 선율에 꽃잎 날리우고 Flower Petals Floating in Gayageum Melody

05. 25. | 광개토사물놀이 Gwangaeto Samulnori

5월 일요일열린무대

Sun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제290회
이부산의 삼도 풍물 한판
Samdo Pungmul by Lee Busan
05. 01.



제291회
두드림의 승부사 '타투'
Drumming Adventure by 'Tatu'
05. 08.



제292회
시흥시 상여, 회다지 소리
Siheung City's Song of Sangyeo and Hoedaji
05. 15.



제293회
최용의 상쇠춤
Sangsoe Dance by Choi Yong
05. 22.



제294회
놀이패 울력
Noripae Wullyeok
05. 29.

* 공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changes to the performance schedule.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6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 Museum Auditorium

_06. 04.
제709회 권혁연의 춤
Dance by Kwon Hyeokyeon

_06. 11.
제710회 박양순의 판소리
Pansori by Park Yangsun

* 토요일공연은 강당 내부 수리로 6월 중순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Due to the renovation of Museum Auditorium, Saturday Performances will be suspended from the middle of June. We will be back with better facilities and performances.

6월 일요일열린무대

Sun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_06. 05.
제295회 두드림의 승부사 '타투'
Drumming Adventure by "Tatu"

_06. 19.
제297회 결련택견
Gyeollyeon Taekkyeon

_06. 12.
제296회 평택농악 한마당
Pyeongtaek Nongak

_06. 26.
제298회 광개토 사물놀이의 신명타악 콘서트
Percussion Concert with Fun by Gwanggaeto Samulnori

6월 정자나무그늘 수요일민속음악회

Wednes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_06. 01.
동초제 흥보가
Pansori Heungboga in Dongcho Style

_06. 22.
시울횃의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
'Live with the Wind' by Siurun

_06. 08.
민속음악의 향연 Fest of Folk Music

_06. 29.
풍물 판굿 Pungmul Pangut

_06. 15.
디딤소리 이야기(퓨전타악)
Story of Didimsori (Fusion Percussion Music)



장인숙의 전통춤 心香舞

Dance by Jang Insuk 'Simhyangmu'



2011. 5. 7.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7 May 2011(Sat),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에서는 마음으로 비춰지는 춤을 통해 나를 바라 볼 수 있고, 관객들과 소통 할 수 있는 “心香舞”의 무대를 마련했다.

장인숙의 전통춤 “心香舞”에서는 한영숙선생의 태평무와 손 살풀이춤, 그리고 남원의 전승인 조갑녀류 승무를 통해 마음의 향기와 춤의 여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태평무는 단아하면서도 섬세한 발놀림이 특징이며, 손 살풀이춤은 한과 비애를 풀어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성이 높은 춤이다. 또한故 김수악선생의 교방굿거리춤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꽃으로 피어나는 형태로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춤의 멋과 신명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진도북춤은 관객들과의 소통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On this Stage 'Simhyangmu', a dance to reflect oneself in heart as well as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will be presented.

This dance performed by Jang Insuk is formed with dances of scent from heart (Simhyang). First, Taepyeongmu and Sonsalpuri Dance of Han Yeongsuk style together with Seungmu of Jo Gabnyeo Style, who was a famous dancer in Namwon region, will be performed. While Taepyeongmu features its elegant and delicate footwork, Sonsalpuri Dance possesses high artistic value of turning the sorrow into pleasure. Also, Gyobanggutgeori Dance and Sword Dance of Kim Suak style symbolize blooming of splendid and graceful flowers.

Finally, Jindo Drum Dance will invite the audience to the scene of Korean traditional enthusiasm.

공연순서 PROGRAM

- | | |
|-------------------------|-------------------------------------------------|
| 1 태평무 Taepyeongmu | 5 조갑녀류 승무
Seungmu in the style of Jo Gabnyeo |
| 2 손 살풀이춤 Sonsalpurichum | 6 교방굿거리춤 Gyobanggutgeori Dance |
| 3 장고춤 Janggo Dance | 7 진도북춤 Jindo Drum Dance |
| 4 홑소리 춤 Hotsori Dance | |



대 표 장인숙 | 세종대학교 무용학 박사, 진주 교방굿거리춤 이수자

반 주 김주홍과 노름마치

특별출연 강윤선, 유영란, 김은희, 이용희, 성애순

출 연 문진선, 김지혜, 신아영, 노수연, 박유진, 임혜리(장인숙 무용단)



백연의 행복한 소리여행

'Pleasant Sound Trip' by Baegyeon

2011. 5. 14.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14 May 2011(Sat),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이수자인 정명희씨의 무대로 올려진다.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소리와 함께 가야금병창으로는 잘 연주되지 않았던 경기민요를 그녀만의 독특한 창법으로 재구성하여 연주하던 것을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다. 첫 무대는 민간 기악곡의 대표적인 장르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생성된 음악인 가야금 산조로 시작하여, 배래의 아름다운 선을 보이며, 여인의 정조와 자태를 이상화하여 만든 작품인 입춤을 보여준다. 이어서 설장구의 세련된 가락과 춤 솜씨로 흥을 돋우면, 흥겹고 경쾌한 느낌의 남도민요로 공연은 서서히 마무리된다.

This stage will be made of Jeong Myeonghee's performance, an artisan of Gayageum Chorus and Sanjo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23). The repertoire includes Gyeonggi Folk Songs, uniquely arranged as a Gayageum chorus with the singer's distinctive voice. After performing Gayageum Sanjo(Folk Song), based and developed around Jeollado province, elegant Ipchum dance which represents women's fidelity is to be followed. Then Seoljanggo will work up the audience with its refined drumming and dance before cheerful folk songs from Namdo province closes the show.

공연순서 PROGRAM

- 1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Sin Gwanyong Style Gayageum Sanjo
- 2 경기민요연곡 (창부타령, 매화타령, 밀양아리랑)
Gyeonggi Folk Songs Medley (Changbutaryeong, Maehwataryeong, Miryang Arirang)
- 3 입춤 Ipchum
- 4 단가 사철가, 춘향가 중 쑥대머리
Danga 'Sacheolga', 'Sukdaemeori' from Pansori Chunhyangga
- 5 호남가, 아리랑연곡 (긴아리랑, 아리랑, 동해바다)
'Honamga', Arirang Medley (Long Arirang, Arirang, Donghaebada)
- 6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Jebinojeonggi' from Pansori Heungboga
- 7 설장고 Seoljanggo
- 8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산타령)
Namdo Folk Songs (Seongjupuri, Namwon Sanseong, Santaryeong)



대 표 정명희 |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이수자
출 연 이순자, 황국자, 남상순, 김수남, 오원희, 김성숙, 이난희, 박혜은, 김진영, 백은주, 강수영, 전소희, 송은지, 권경하, 김승진, 이정, 이주영, 조재현, 김예진
악 사 김성경, 최여영, 김규리, 윤세림
무 용 강만례



운교 정경희의 한춤

Hanchum by Wungyo, Jeong Kyeonghee



2011. 5. 21.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1 May 2011(Sat),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에서는 명무 조갑녀 선생의 춤사위를 잇고 있는 정경희, 정명희씨의 출판이 이어진다. 고종의 어전에 나섰던 이장선(1866-1939)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조갑녀의 춤은 일제 강점 말기 조선춤의 명맥이 위태로웠던 시절에 사라질 뻔한 귀한 춤으로, 조갑녀의 승무와 민살풀이춤만이 현재 가까스로 남아있다.

오늘날 국악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는 국악의 본 고장 남원의 명무 조갑녀는 춘향제 역사와 함께 기억된다. 조갑녀의 승무와 살풀이춤은 오늘 공연에서 여섯째 딸인 정명희가 민살풀이춤으로 선보이며, 막내딸인 정경희씨는 즉흥성이 강한 한춤을 뽐낼 예정이다.

On this Saturday stage, Jeong Gyeonghee and Jeong Myeonghee, daughter-successors of Jo Gabnyeo will perform traditional dance. Jo Gabnyeo, the greatest dancer from the region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s Namwon, was also the last disciple of Lee Jangseon who was a court dancer in the reign of King Gojong. Among her numerous dances, only Seungmu and Minsalpurichum are passed down while others have been in danger of extinction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Jo Gabnyeo's Seungmu and Salpuri dance will be performed by her 6th daughter Jeong Myeonghee in the form of Minsalpurichum, and the youngest daughter Jeong Gyeonghee will present Hanchum, the dance of improvisation.

공연순서 PROGRAM

- 1 산조춤 Sanjochum
- 2 경복궁 타령 Gyeongbokgung Taryeong
- 3 승무 Seungmu
- 4 판소리 춘향가중에서 한 대목 A piece from Pansori Chunhyangga
- 5 회심곡 Hoesimgok
- 6 민살풀이춤 Minsalpurichum
- 7 한춤 Hanchum



대표 정경희 | 해울무용단 대표

사회 이계영

출연 정명희, 최영란, 정호인, 신지원, 김지욱, 김민정, 양효정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Story of Seungmu' by Lee Cheoljin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에서는 이철진의 한국춤예술센터와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전통예술단 아우름 소속의 공연자들의 기량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한영숙 선생이 승무를 사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르쳤다는 기본춤인 본 살풀이, 대금 산조, 단아하고 정갈한 한영숙류 살풀이춤 등을 선보인다.

특히, 본살풀이의 경우 승무와 태평무의 움직임까지 내포하고 있어, 그 보존적 가치가 높고 전통 무용가 한영숙을 이해하기에 매우 좋은 작품이다. 마지막은 모든 춤의 기본이 되며, 한국 무용 특유의 정중동·동중정의 춤사위가 잘 표현되어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승무로 대미를 장식한다.

In this Saturday's performance, Lee Cheoljin's Korean Dance Arts Center and Traditional Art Group Aureum, aiming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ill present a stage filled with dance and music.

First part of the performance includes Bonsalpuri, which was the basic dance for trainees before learning Seungmu, as well as Daegeum Sanjo and elegant Salpurichum of Han Yeongsook style.

Especially the Bonsalpuri danc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Han, the great traditional dancer, for containing motions of Seungmu and Taepyeongmu.

Finally Seungmu, the fundamental dance of all Korean dances with the highest artistic value will be the grand finale of the stage.

공연순서 PROGRAM

- 1 본 살풀이 Bonsalpuri
- 2 대금 산조 Daegeum Sanjo
- 3 살풀이춤 Salpurichum
- 4 가야금 독주 Solo Gayageum
- 5 승무 Seungmu



예술감독 이철진

음악감독 송영숙

해설 김민주

출연 한국춤예술센터, 전통예술단 아우름, 이철진 풍류패 단원 외

악사 이석중(장고), 윤보형(피리), 송은영(대금), 정유진(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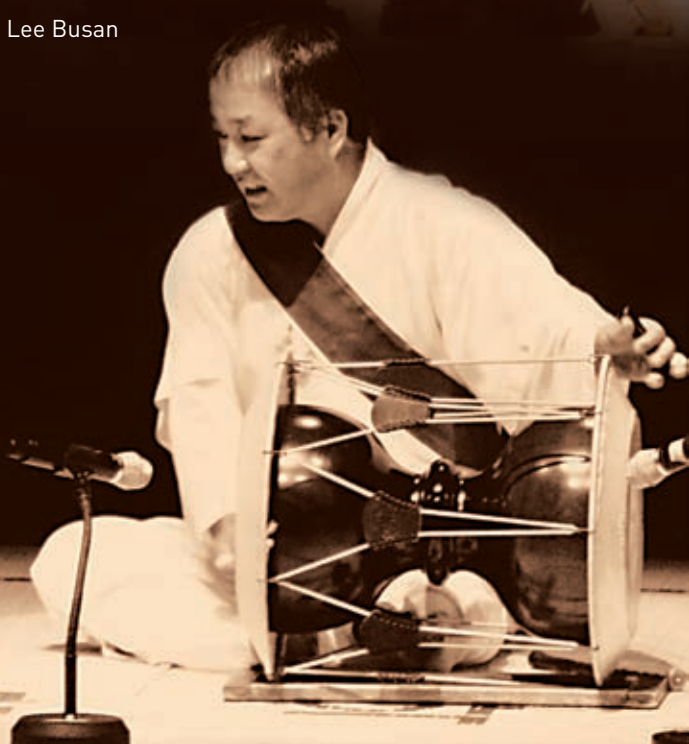
2011. 5. 28.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8 May 2011(Sat), Museum Auditorium



이부산의 삼도 풍물 한판

Samdo Pungmul by Lee Busan



2011. 5. 1. sun (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 May 2011(Sun),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5월의 첫번째 일요일리민속무대는 설장고의 명인인 이부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동료, 제자들과 함께 결성한 국악 연주전문단체의 무대로 꾸며진다. 전통 풍물공연을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국 무형문화재 중에서 “진주삼천포 농악”과 “호남우도농악”의 음악적인 재구성을 통해 전통 풍물의 원형과 본래의 놀이 문화를 표현하여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우리 민족만의 신명난 삶이 그려진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어르신들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내재된 역량과 에너지를 뽐내며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May's first Sunday Performance will be played by Lee Busan, master of Seoljanggo, with his friends and students to show the preserved and developed form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e performers have musically rearranged Jinju Samcheonpo Nongak and Honam Udo Nongak, both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order to deliver the essentials and originality of Pungmul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play) and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audience. The audiences are welcom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express their inner energy to build a festive scene for everyone.

공연순서 PROGRAM

- 1 호남 고사 소리 Honam Gosa Song
- 2 앉은반 설장고 놀음 Seated Seoljanggo
- 3 판소리 Pansori
- 4 호남우도 사물놀이 Honam Udo Samulnori
- 5 민요연곡 Folk Song Medley
- 6 삼도 판굿 Samdo Pangut



대표 이부산 |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전수교육교조
출연 권준성, 이상현, 김중문, 박지웅, 조용성, 김지수, 한정이,
이찬, 권준혁

두드림의 승부사 '타투'

Drumming Adventure by 'Tatu'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8 May 2011(Sun), Museum Courtyard

2011. 5. 8. sun (일)
2:00 p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전통예술공연단 타투는 두드림의 승부사라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타악기 리듬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제압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힘을 내보인다. 창작음악과 퍼포먼스 음악들이 난무하여 본래 사물놀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전통예술공연단 타투는 사물놀이 특유의 긴장과 이완의 원리를 충실히 지켜, 보는 이로 하여금 타악기의 원초적인 감동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공연은 설장구 명인들의 가락을 종합하여 실내악 형식으로 만든 장구 합주인 삼도 설장구, 삼도 사물놀이와 판소리에 이어, 판굿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머리로는 상모를 돌리고, 팔로는 악기를 치며, 다리로는 춤사위를 만들어는 판굿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이다.

Drumming Adventure will be played by Traditional Arts Company Tatu. As 'Drumming Adventure' suggests, Tatu has a firm will to compete in the world with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While creative performance has been mainstreamed in contemporary Korean percussion performance and losing the original aspects of Samulnori, Traditional Arts Company Tatu will deliver the raw excitement of percussions.

The performance starts with Samdo Seoljanggu, which is an ensemble of Janggu (hour-glass drum) in the style of great Janggu players from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It continues to Samdo Samulnori and Pansori, then Pangut will be the finale of the show. The audience can see each player twirling Sangmo while drumming and dancing at Pangut, the highlight of the performance.

공연순서 PROGRAM

- 1 삼도 설장구 Samdo Seoljanggu
- 2 삼도 사물놀이 Samdo Samulnori
- 3 판소리 Pansori
- 4 판굿 Pangut



대표 최재학 | 전통예술공연단 타투 대표

출연 이찬행, 장주영, 이동영, 이희철, 양태양, 조태욱, 이재일, 김보미, 김보경

시흥시 상여, 회다지 소리

Siheung City's Song of Sangyeo and Hoedaji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경기도 시흥시는 21세기에 들어선 현재도 시신을 상여로 싣고 매장을 하기도 하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고종 황제 장례 때 상여소리를 매겼다는 소리꾼 염씨를 비롯하여 동네마다 선소리를 메기는 소리꾼들이 있는 곳이다. 이를 전수받은 국악인 박일엽씨에 의해서 시흥의 상여, 회다지 소리가 계승되고 있는 데, 운구할 때에 부르는 상여소리와 봉분을 쌓기 위하여 회와 흙을 섞어 다지면서 부르는 회다지 소리를 오래도록 전승해야 할 무형 문화재로 기리기 위하여 국악인과 시흥시민이 함께 꾸며 공연화한 작품이다. 시흥시 상여소리를 고증하여 예술작품으로 올린 이번 무대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지만,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Siheung City of Gyeonggi Province is well preserving aspects of traditional life including the form of funeral, and has been famous for the great Singers of mourning songs. The songs are carried over by a Korean traditional musician named Park Iryeob and musicians have arranged the songs for carrying bier (Sangyeosori) and hardening the ground for burial mound (Hoedaji) into a shape of performance together with Siheung citizens, in order to remain the tradition. The audience will have a precious time of encountering to the original form of traditional culture that shall be transmitted and developed.

공연순서 PROGRAM

- | | |
|----------------------------------------|-------------------------------------------------|
| 1 고복 Gobok | 6 운구(자진 상여소리) Carrying Bier (Jajin Sangyeosori) |
| 2 회심곡 Hoesimgok | 7 회다지1 Hoedaji1 |
| 3 발인제 Barinje | 8 회다지2 Hoedaji2 |
| 4 운구(상여소리) Carrying Bier (Sangyeosori) | 9 어화너 Eohwaneo |
| 5 노제 및 살풀이 Noje and Salpuri | |



기획·연출 정원철
소리지도 박일엽
해설 양종승
선소리꾼(복) 박일엽, 김인삼
상두꾼 김종태, 이병기, 이재구, 김천년, 황윤의, 이규수, 이창수, 김명신, 김정자, 최승연, 손기순

출연 안태원, 윤현준, 이종숙, 김미란, 최선영, 이영애, 유하영, 장지혜, 전성호, 한건영, 채영남, 박선희, 신옥화, 유명옥, 최경자, 박행하, 김미령, 김은옥, 김천년, 김영해, 이희자, 김유정, 나경란, 정의경, 주태선, 기경옥, 정의범, 이지현, 김두현, 전우진

2011. 5. 15. sun (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5 May 2011(Sun), Museum Courtyard

최용의 상쇠춤

Sangsoe Dance by Choi Yong



2011. 5. 22. sun (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22 May 2011(Sun),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무형문화재 제 17호 우도농악은 영무장 지역(영광, 고창, 장성, 광주)의 재인광대들이 歌·舞·樂을 함께 연희하던 신청 걸궁으로서, 조선시대 관청에서 행해지던 '나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재인 광대들이 관청에 나아가 연희하던 옛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우도농악의 상징처럼 일컬어지고 있는 상쇠춤은 부포놀이라고도 하는데, 예능보유자故 전경환 상쇠가 최화집(장성), 박성근(고창), 강성옥(고창), 전병남(영광)으로부터 배워 이를 체계화시켜 춤추게 된다.

특히, 상쇠춤과 같은 것을 구정놀이라고 하는데, 판놀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굿에서 펼쳐지는 개인놀이를 말하는 것이다. 장구놀이, 북놀이, 소고놀이, 12발상모, 탈놀이를 같이 펼친다.

Udo Nongak,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7 and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festive performance of Sincheong area, contains all of singing, dancing, drumming and played by the clowns and acrobats of Yeongmujang area (east part of Jeollado province). It can be seen as a 'Narae' which was performed for government officials in Joseon dynasty, and this is probably the reason of the long preservation with its original form.

Sangsoe dance or Bupo Nori, called as the distinction of Udo Nongak,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outstanding Soe(small gong) players of various areas. The audience is asked not to miss Gujeong Nori, the individual stage of each percussion players and known as the centerpiece of Pangut. This performance includes plays of Janggu, Buk, Sogo, 12-bal Sangmo and Mask dance.

공연순서 PROGRAM

- | | |
|--------------------|---------------------------------------|
| 1 모듬굿 Modeumgut | 5 북놀이 Buknori |
| 2 오채질굿 Ochaejilgut | 6 설장구 Seoljanggu |
| 3 허허굿 Heoheogut | 7 부포놀이(상쇠춤) Bupo Nori (Sangsoe Dance) |
| 4 소고놀이 Sogonori | 8 12발 상모 12-bal Sangmo |



대표 최 용 | 우도농악보존회 회장

출연 김예지, 권아영, 이정미, 전영진, 송미경, 박주현, 장동익, 이상호, 최은미, 김정희, 고승희, 박현정, 신진, 김영복, 서두환, 송정호, 강정원, 진미영, 김정숙, 박하혜, 김성애, 문진수, 김건모

놀이패 울력

Noripae Wullyeok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날뫼북춤은 대구의 비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 오는 북춤이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다 어느 여인의 비명소리에 놀라 땅에 떨어져서 동산이 되었다는 전설에 의해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뫼(飛山)'라 부르게 되었고, 옛날 지방관리가 순직했을 때 백성들이 이를 추모하기 위해 봄·가을에 북을 치며 춤을 추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북만이 연주악기로 사용되며,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가락(굿거리장단)에 맞추어 흰 바지 저고리에 감색 전투복을 입고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추는 춤인 날뫼북춤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정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민속춤으로, 현재 예능보유자 윤종곤선생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This performance presents Nalmoe Bukchum, the percussion performance of Bisan area. There is a story that a mountain-shaped cloud fell down to the district and became a small mountain, thereby people started to call the town Nalmoe or Bisan, both meaning flying mountain. Nalmoe Bukchum originates from commoners' memorial ceremony of dancing and drumming performance for a local official, held in spring and autumn. The Bukchum performers only play Buk(drum), wearing navy combat coat on white cloths. The dance is transmitted by Yun Jonggon, the Human Cultural Asset.

공연순서 PROGRAM

- | | |
|------------------------|-----------------------|
| 1 덩덕궁이 Deongdeokgungyi | 7 허허굿 Heoheogut |
| 2 반직굿 Banjilgut | 8 오방진 Obangjin |
| 3 옆어빠기 Eopbbaegi | 9 모듬굿 Modeumgut |
| 4 다드래기 Dadeuraegi | 10 상모판굿 Sangmopangut |
| 5 설장구 Seoljanggu | 11 살풀이굿 Salpurigut |
| 6 물레돌기 Muledolgi | 12 덧배기춤 Deotbaegichum |



대 표 유동식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비산농악날뫼북춤 서울지부장
출 연 장이환, 전경자, 오현범, 장지성, 김주범, 윤여임, 한종아, 김예경, 김이수, 최경봉, 최혜경, 김영자, 금성현, 송미석, 곽혜숙의 10명

2011. 5. 29. sun (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9 May 2011(Sun), Museum Auditorium